

고양 30년을 담다
고양특례시로 날다

goyangjobcon.kr

청년드림 JOB 콘서트

제15회 청년 일자리박람회

채용지원(온라인) · 청년일생학교 ·
공공지원정책 · 미래일자리탐색 · 진로 멘토링 ·
취업 컨설팅 · 공감힐링

현장 박람회 2022. 09. 22(목) 13시~17시 고양꽃전시관

온라인 채용 2022. 08. 29(월) ~ 09. 30(금)

주최 '고양특례시 후원' 고양노동부 고양지방청 고양대학교 한국정보대학교 고양직업전문학교
문의처 '운영사무국 070-4219-7498 홈페이지' goyangjobcon.kr



고양시 홍보인

2022 SEPTEMBER

09

VOL. 355

특집호

고양 30년을 담다
고양특례시로 날다



GOYANG CITY MAGAZINE

2022 SEPTEMBE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소식지
<고양원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선 이들은 누구나 장밋빛 미래를 그립니다. 때로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그 미래를 미사여구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조금 투박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기분을 지키겠다’는 민선8기 고양특례시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담은 늘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의 주인공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곧 해답이자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비추는 길을 따라 착실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처음 그렸던 장밋빛 미래에 성큼 다가서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4년간의 여정, 그 진솔한 이야기를 <고양소식> 9월호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민선8기 고양특례시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역사의 꽃이 피었습니다’ 코너가 이번 호는 ‘커버스토리’로 대체됩니다.



GOYANG CITY MAGAZINE

2022 SEPTEMBER



고양소식
오디오북



고양소식
전자책

발행인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편집인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에디터 홍보기획팀장 박현각, 주무관 윤정로, 김명주
편집위원 김민정, 김은정, 노정민, 오문석, 윤재진,
이경현, 이암중, 임태성, 정동일, 정현숙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홈페이지 www.gy1pick.kr
이메일 gysoosik@naver.com
기획·디자인 웨스트코(주)
발행일 2022년 9월 1일

이달의 꽃 코스모스

“
코스모스, 신(神)이 맨 처음 만든 꽃
”

이름 코스모스, Common cosmos,
Garden cosmos
학명 Cosmos bipinnatus
개화시기 6월~10월
꽃말 소녀의 순결, 순정
원산지 멕시코



- 04 **취임사**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 06 **포토리뷰**
사진으로 보는 민선8기 이야기
- 08 **인터뷰**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 10 **4대 정책, 4대 목표**
경제특례시 성공시대, 고양시민의 행복시대
- 12 **주요 정책과제**
한눈에 보는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
- 14 **시민이 바라는 고양**
당신이 꿈꾸는 고양을 들려주세요
- 16 **고양 특독**
경제자유구역 전문가 기고

- 18 **슬기로운 고양생활**
고양특례시 지역특화 편의점
- 20 **특집 한가위**
추석맞이 전통시장 둘러보기
- 24 **특집 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극복 지원 프로그램
- 26 **특집 치매극복의 날 ②**
치매, 극복 할 수 있어!
- 28 **특집 청년의 날**
청년 지원 정책
- 30 **고양 잡스**
더 JOB 고양 일자리발굴단
- 32 **고양툰**
경의로 가로숲길 조성

- 34 **은빛바람**
고양실버인력뱅크 꿈전파문화공연단
- 38 **피어나라 청춘아**
봄햇살스튜디오
- 40 **해피투게더**
자원순환가게

- 42 **길따라 이야기따라**
창릉천 코스모스 이야기
- 46 **고양 핫스팟**
고양낙농치즈체험장
- 48 **추천IN고양**
떠나요 가을산책

- 50 **문화공감**
9월의 문화 콘서트
- 52 **고양계시판**
의정, 시정, 유관기관 소식
- 57 **고양 챌린지**
고양원픽 4행시 챌린지
- 58 **독자 소리함**
독자 후기 및 고양 사랑방

66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고양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단상,
위대한 고양시민,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자리입니다.

99

출생 1966년
학력 -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 석사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경력사항 - 현 제11대 고양특례시 시장
- 전 20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전 윤석열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 국토정책위 팀장
- 전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 전 경기도 정무실장
- 전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초대협력관
- 전 연세대·홍익대 겸임교수



오늘 민선8기 새로운 출발은 위대한 고양시민, 바로 여러분이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이제, 멈춰 버린 고양의 시계는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고양시민에 대한 희망고문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저 이동환은 그동안 잃어버린 고양의 자산 가치를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변방에서 세계적인 매력 도시로 올려놓겠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약속드렸던 고양 성공시대, 시민 행복시대! 반드시 그리고 제대로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나라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양의 내일은 여전히 그리고 밝게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양의 잠재가능성은 10퍼센트도 채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좋은 도시로서의 입지도, 역량 높은 고양시민의 열망도 여전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뜻과 정성을 모아 가능성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시정혁신으로 ‘일하는 경제특례시, 고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의 허브도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북부권의 대표 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저는 고양의 발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구석구석 어떻게 바뀌 나갈 것인지도 숙고해 왔습니다. 이제 고양시 3대 축인 도시와 시정, 그리고 시민의 삶을 함께 업그레이드하는 ‘고양형 3대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차별적 경쟁력으로 ‘잘 사는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고양시는 인구로만 이뤄낸 특례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창의적인 매력과 일자리가 넘치는 ‘글로벌 경제특례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부터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기업친화적인 체질이 되도록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이 늘어나 우리 고양특례시가 부자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 부자가 되어야 시민의 자산 가치도 높아집니다.

바이오 정밀의료·디지털영상·ICT 융복합·AI로봇 등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전시장, 최고의 전문 공연장을 거점으로 글로벌 한류 문화의 콘텐츠 생산기지로서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찾고 싶은 고양, 매력이 넘치는 고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의 청년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청년 수도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십 년째 제자리인 고양시 전역의 교통여건과 주거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당시와 큰 차이 없는 피곤한 출퇴근길 교통망을 속 시원히 뚫겠습니다. 더 길게, 더 많이, 더 빠르게 철도를 늘리겠습니다. 강남까지 30분에 주파 가능한 지하고속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도심은 재개발을, 신도심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대화로부터 지축까지 살고 싶은 정주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임기 내내 단 하루가 아쉽고 절박한 심정으로 ‘일하는 시장, 듣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시민과 함께 현장에 있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대표도, 정부부처 관계자도, 민원인도 직접 만나 해결하는 상향식 소통 시장이 될 것입니다.

둘째,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화합과 협치의 시정 구현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당연하게 통용되는 사회, 내일이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정의 내부부터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양특례기업의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민 최우선의 실용주의 자세로 나가겠습니다. 네 편, 내 편 가르치 않는 ‘화합의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여야가 함께 하는 ‘협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속통(通)행정’으로, 시민의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시책의 공유를 보장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판을 짜는 과정부터 시민을 모시겠습니다. 오직 한 길,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가족의 일상은 안전해야 합니다. 시민의 노후는 안심되어야 합니다. 고양의 민생은 안정되어야 합니다. ‘3안(安)행정’으로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삼겠습니다. 출생은 줄고 수명은 늘고 있습니다. 기성복처럼 찍어내는 복지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몸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건강과 힐링, 여가 등 균형있는 삶을 지켜주는 것이 현대인이 추구하는 삶, 곧 웰니스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융합 기술을 통해 건강과 복지를 관리하는 웰케어 플랫폼으로 체험형, 만족형, 선도형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진다’는 그 든든함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이제 고양은
더 이상 물러설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공간도 없습니다.

저 이동환은 도시전문가로, 시장으로, 고양시민으로 평생 쌓아온 역량을 고양의 미래에 쏟아 내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민선 8기, 4년은 고양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시간이자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새로운 고양의 목표는 바로 ‘경제특례시 성공시대, 고양시민의 행복시대’입니다. 저 이동환은 능력으로 일하고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께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사진으로 보는 민선8기 이야기

민선8기 출범 이후 두 달여의 시간,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돌아본다.



#6.14

민선8기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현판 제막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7.1

민선8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0시,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민선8기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7.9

'2022 고양시장기 한마음 걷기 행사'에서 킨텍스 수변공원 10km를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7.19

제26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이동환 시장은 '민선8기 시정운영 방향'을 밝히며 첫 시정연설을 했다.



#7.13

폭염 속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와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피며 삼베이불 및 선풍기를 전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



#8.9

집중호우로 범람 위기를 맞았던 성사천 강대배수펌프장을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하며 재난 대응에 나섰다.



#6.23

이동환 당선인은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학생들의 손편지를 받고 토당초교에 깜짝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7.1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취임사 및 비전을 밝히며 민선8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7.16

도심형 자전거 대회인 '킹오브트랙(KING OF TRACK)'에서 시민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경기를 관람하며, 자전거 친화도시 고양을 알렸다.



#8.26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들을 만나 최대한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6 시민만 바라보고 99 일하겠습니다

민선8기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

지난 30년, 고양은 군(郡)에서 시(市)로, 다시 시에서 특례시로 승격되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 고양을 삶의 무대로 삼고 살아온 시민 역시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그려왔다. 그리고 더 나은 도시를 꿈꾸는 시민들의 열망은 여전히 뜨겁다. 행정이란 '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정책에 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성장하는 도시와 비례해 시민의 삶도 풍요롭기를 바라는 민선8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청사진은 선명하다.

민선8기 고양특례시장으로서
포부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가로서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란 어떤 것일까'를 한평생 고민하고 공부해왔습니다. 이제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변화를 원하는 시민을 위해 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실현시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선8기 1호 결재인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이 눈에 띕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단 출범은 향후 4년간 민선8기 고양특례시의 정책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탄입니다. 동시에, 도시와 시민을 위한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고양특례시는 민선8기를 기점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자족 도시로의 전환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간 고양특례시는 접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유 때문에 상당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3중 규제에 가로막혀 기업 유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기업 친화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돌파구가 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유치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자족 도시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고양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은 아파트로 들어찬 고양특례시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첨단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고양판 실리콘밸리'를 실현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확정된 인프라

와 JDS(장항, 대화, 송산·송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기반으로 바이오 정밀의료·디지털영상·ICT융복합·AI로봇·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업 1천여 개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인근 김포와 파주, 의정부, 양주 등도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시정 연설에서 교통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고양특례시의 인구는 현재 108만으로 늘어났지만, 교통 인프라의 규모는 53만에 멈춰 있습니다. 신도시를 처음 설계할 때 예상했던 규모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3호선·경의중앙선의 급행열차 운행, 9호선·신분당선 고양특례시 연결, 지하고속도

로 건설 등을 계획 중입니다. 교통망 확충은 시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정책인 만큼,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확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주거 정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특히 원도심인 덕양구 지역은 많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은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자산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재개발·재건축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장 직속 도시정비기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고,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감한 시정 혁신을 통해 지난 12년간 멈춰있던 고양특례시의 경제 시계를 되돌리겠습니다. 도시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반도 탄탄히 마련하겠습니다. 고양특례시가 하루빨리 경기 복부를 대표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입니다. 고양특례시청사에는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이는 민선8기 고양특례시의 진정성이 반영된 시정 철학입니다. 어떤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든,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을 꾸려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새로운 고양을 위한 4대 정책, 4대 목표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더 새로운 고양특례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민선8기의 힘찬 다짐이다.

과감한 시정 혁신과 핵심 정책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대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민선8기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이곳에 소개한다.

4대 기본정책 방향

01

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한 **혁신행정**

새로운 고양의 목표는 바로 '경제특례시 성공시대, 고양시민의 행복시대'입니다. 먼저, 불필요한 힘은 빼고 효율은 높인 '지렛대 조직'으로 공무원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완전하고 알찬 경제특례시로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민 최우선의 실용주의 자세로 나가겠습니다.

02

차별적 경쟁력으로 잘사는 도시를 위한 **창의행정**

차별적 경쟁력으로 '잘 사는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부터 유치하겠습니다. 바이오 정밀의료·디지털영상·ICT 융복합·AI로봇 등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전시장, 최고의 전문 공연장을 거점으로 하여 글로벌 한류문화의 콘텐츠 생산기지로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03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화합과 협치를 구현하는 **속통(通)행정**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 통하고 속이 통하는 '속통(通)행정'으로 시민의 형식적 참여를 넘어 언제든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의 공유를 보장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플랫폼과 전략소통기구를 통해 정책의 판을 짜는 과정부터 시민을 모시겠습니다.

04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3안(安)행정**

가족의 일상
‘안전’해야 합니다.

시민의 노후는
‘안심’돼야 합니다.

고양을 민생은
‘안정’돼야 합니다.

'3안(安)행정'을 복지의 새 패러다임으로 삼아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경제특례시 성공 시대

고양시민 행복 시대

4대 분야별 목표 & 핵심과제

01

기획조정분야

경제특례시 대전환을 위한 시정 혁신, 자원 확보, 정책 브랜드화

- 경제특례시 대전환을 위한 공정과 상식의 스마트한 시정 혁신
- 경제위기 극복과 가용 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 재편성
-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브랜드화 추진

02

경제분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특례시, Global City 도약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Global City 도약
- 미디어, 정밀의료, 빅데이터, MICE 등 4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특례시 도약

03

도시교통안전분야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이동이 편리한 도시

- 자족특례도시 완성을 위한 민선8기 도시정책 실현
- 고양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선8기 교통정책 실현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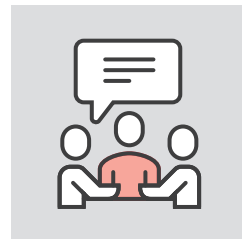
사회문화분야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행복도시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 도시
- 활력 넘치는 문화관광 매력도시 구현
- 미래 인재육성과 평생학습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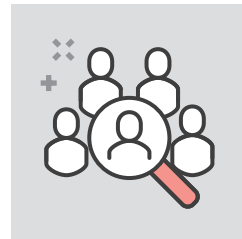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고양특례시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

시민과 함께 펼쳐갈 고양특례시 민선8기 출범은 새로운 고양을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이다.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민선8기 고양특례시의 8대 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한눈에 살펴보며 새로운 고양특례시의 모습을 그려본다.



01 조직·예산, 정책기획

- ① 새로운 시정에 부합하는 과감한 조직 혁신
- ②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 ③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
- ④ 경제위기 극복과 가용 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 재편성



02 일자리

- ① 혁신을 선도하는 벤처창업 도시(청년소셜벤처, 청년창업 등)
- ② 고양시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체계 구축
- ③ 소상공인 위기 극복 시민 제안 반영(현장경영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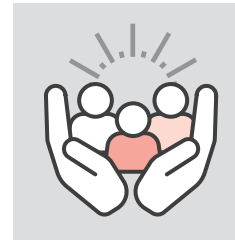
03 교육·문화

- ① 드림스쿨 캠퍼스 조성
- ② 특목고 설립
- ③ 영어전문도서관 신설



04 산업(경제자유구역)

- ① 경제자유구역 지정
- ② 고양형 실리콘밸리(4차 산업혁명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
- ③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유전공학, 첨단의료, AI, 빅데이터 융·복합 등)
- ④ 국제회의, 국제대회, 전시회, 관광 등 MICE 산업 육성
- ⑤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기업 메카로 집중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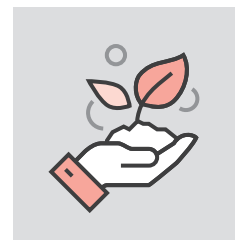
05 복지

- ①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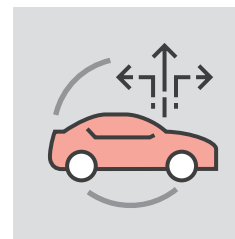
06 도시정비

- ①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 추진
- ② 도시정비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시범사업 추진



07 환경(안전, 녹색경제)

- ①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통합(지하안전지도)
- ② 노후기반시설 관리방안 마련
- ③ 미세먼지 없는 고양 만들기(안개터널, 도시숲 설치)
- ④ 수소발전소 설치 및 친환경 자동차 복합충전소 확대 설치



08 교통

- ① 신분당선 일산 연장 및 9호선 고양 연결 추진
- ② 3호선 급행 추진
- ③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추진
- ④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건설(민간투자개발) 및 환승교통체계 구축

민선8기, 고양특례시가 만들어갈 행복한 변화는
고양시민의 작은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시민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민선8기를 향한 시민의 바람,
그리고 시민이 꿈꾸는 고양 이야기를 이곳에 담았다.

당신이 꿈꾸는 고양을 들려주세요



고양특례시=세계적인 매력 도시

김영순

(80대 / 일산동구 풍동)

민선8기가 시작된 후부터 두근두근 설렙니다. '고양특례시=세계적인 매력 도시'라는 공식이 머지 않은 시간에 현실이 될 것 같은 기대 때문입니다. 청년층,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이 모두 웃는 고양시를 만들어주세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매력 도시, 고양시'가 되기 위해 노년층이 참여할 일이 있다면, 저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고양 토박이 20대 청년입니다. 작년까지 행신에서 서울로 직장과 대학원을 오갔습니다. 고양시에서 버스나 지하철로 오랜 시간 등하교, 출퇴근하면서 느낀 점은 긴 배차간격으로 인한 불편함이었습니다. 고양시 안에서 또는 고양시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출근길이 여유로워지고, 저녁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가치 있는 고양특례시가 되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으로 삶의 여유를

박이슬

(20대 / 덕양구 행신동)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는 섬세한 배려와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상 속 마주하는 크고 작은 고충에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부서져 흔들리거나 마모가 심해 교체가 필요한 보도블록을 자주 목격합니다. 또한 턱이 높아 유모차나 휠체어의 이동이 어려운 곳도 있으며, 생활도로의 불법주정차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 속 시민의 불편함이 하나씩 해결되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김경섭

(50대 / 일산서구 일산동)



**시니어가 함께하는
행복 고양**

임명자

(70대 / 일산동구 풍동)

고양시에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노인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노인층을 위한 인프라와 복지가 잘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살아온 고양시는 노인이 살기에 참 좋은 도시입니다. 노인을 위한 제도와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복지 또한 나날이 좋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시니어들이 살기 좋은 도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나무들이
커가는 도시**

김경란

(30대 / 덕양구 화정동)

아이 키우기 참 좋은 고양을 기대합니다. 8살 아이를 둔 엄마로서 고양시가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특히 아이들 등하교 시 더욱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도로 및 교통 환경이 조성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스포츠, 문화 체험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의 꿈나무들이 맘껏 웃고 뛰놀며 커나갈 수 있는 고양시가 되길 응원합니다!



고양은 소중한 터전

나경호

(40대 / 일산서구 일산동)



이곳에 와서 좋은 친구들과 이웃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고, 저와 제 가족은 더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하루는 따스함으로 가득합니다. 모두 고양으로 오세요! 오매불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특별기고

고양특례시에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자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이 공식 출범하며 새로운 고양으로의 첫걸음을 떼었다. 최종 목표인 기업친화적인 경제특례시 안착까지는 준비할 일이 많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 과제는 무엇일까.

글. 안충영

-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 前 외국인투자증부즈만
- 前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국내 경제성장 견인하는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이하 FEZ)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으로 정의된다. FEZ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현재 전국에서 총 9개 지역이 FEZ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고양특례시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구상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고 성공적 운영을 하려면 각종 기반인프라의 하드웨어와 기업하기 좋은 제도에 초점을 둔 소프트웨어를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공항 및 항만 물류시설, 광역교통 및 정보통신망, 전력, 공업용수 등을 공공재원으로 건설하고, 조세감면, 현금지원,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의 인센티브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규제철폐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제1호 FEZ는 2003년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송도지구는 비즈니스, IT·BT 기능, 영종지구는 물류, 관광 기능, 청라지구는 금융, 레저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서울에 인접하고 인천국제공항에도 근접하여 국제기구와 FDI 유치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들은 경쟁적으로 FEZ를 지정받았다. 그러나 인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FEZ들은 국제기구 유치나 국제금융 등 국제도시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고 FDI 유치 실적도 저조하여 산업단지의 확충과 지방균형 개발이념에 머무르고 있다.

개발은 규제개혁부터

고도기술 FDI를 위하여 국가 전체를 경제특별구역으로 개방한 네덜란드, 싱가포르 모델에 이어 FDI를 활성화시킨 두바이, 아일랜드, 중국의 해남성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비즈니스 허브 국가들은 국가적 명운을 걸고 1970년대 중반부터 전 국토를 자유화하고 관민의 협력체제 아래 FEZ를 추진하였다.

정부도 앞으로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처럼 기업하기 좋은, 사실상 전국이 경제자유구역화 되어가는 비즈니스 허브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여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고양특례시도 FEZ 열차를 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왜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려 하는가? FDI 호스트 국가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경제발전엔 필요한 자본과 새로운 기술 및 지식확산(Knowledge spillover) 및 새로운 경영 기법을 전수 받고 국제적 공급사슬망에도 합류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호스트국가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 내수시장, 자원 확보, 저렴한 노동력, 현지 기업과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의 확대 등을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 FEZ는 다국적 기업의 목표와 호스트 국가의 이익이 일치되어야 하는 상호 윈윈(Win-Win)의 틀에서만 가능하다.

경기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기대

고양특례시는 현행 법령 아래 FEZ 요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체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그리고 기회(Opportunity)와 위험(Threat)요인에 대한 SWOT 분석을 하고, 약점과 위협요인은 극복하고 강점과 기회는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를 흡입할 수 있는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을 적극 배양해야 한다. 통근 거리에 고급직·기능 인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양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을 쌓아 가야 한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대도시로 올해 초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또한 서울,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도시로서 우리나라 최대 상설 전시와 컨벤션을 개최할 수 있는 킨텍스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CJ그룹이 약 32만㎡ 부지에 우리나라 최대 한

류 공연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리고 약 87만㎡에 이르는 테크노밸리 조성에 이어 10만㎡에 이르는 산업단지 후보지가 있어 산업과 서비스 기업의 클러스터링을 추진할 수 있다. 바로 옆 선별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상호 보완하여 기존 FEZ와는 차별화된 FEZ를 추진할 수 있다.

마침 경기도가 인구와 발전격차 등을 감안해 경기북도 분할 개념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접 자유구역청과의 중복기능도 고양특례시는 극복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반도체 등 혁신기술 투자와 역량 강화는 이제 다다익선이 되고 있다. 2020년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는 지역산업 육성전략에 맞춰 FEZ 확대와 효율화를 위한 지자체의 자율권 강화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였다. 그리고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과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도 건의한 바 있다. FEZ 지정을 위한 요건들 가운데 고양특례시는 상당한 항목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 고양특례시가 선택과 집중으로 기술혁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동한 고양특례시장이 취임 후 제1호 공식문서인 '경제자유구역 추진단 구성 계획'을 결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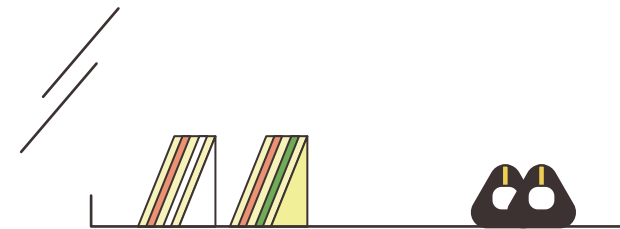


고양특례시 편의점에는 고양고양이가 산다

“지금까지 이런 편의점은 없었다. 이곳은 편의점 인가, 홍보관인가.” 노인일자리 창출 사회공헌형 점포 ‘시니어 스토어’를 론칭한 바 있는 고양특례시와 GS리테일이 또 한 번 손을 맞잡았다. 바야흐로, 고양고양이를 만날 수 있는 편의점이 탄생한 것이다.



GS25일산프라디움점 일산동구 연리지로 60(장항동)



고양특례시에만 있는 특별한 편의점

뭐니 뭐니 해도 상점의 생명은 ‘상권’이다. 그런 면에서 일산동구 연리지로(장항동)에 자리한 GS25일산프라디움점은 가히 최고의 입지라 할 만하다. 이곳은 유동 인구 많기로 소문난 일산호수공원 초입에 딱 하니 동지를 틀고 있다. 현대모터스튜디오와 노래하는 분수대, 원마운트, 일산호수공원 가로수길이 바로 지척에 있다. 지역 특화 편의점을 준비하는 고양특례시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12월 GS리테일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특화 편의점 출범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렇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7월 1일 문을 연 곳이 바로 고양시 베스트 편의점 GS25일산프라디움점이다. 편의점 앞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 쌍의 고양고양이 커플이 두 팔 벌려 방문을 환영한다. 입구 유리문에 그려진 친근한 고양고양이의 모습도 아기자기하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곳이 일반 편의점과는 다른, 고양특례시의 도시 브랜드를 품은 특별한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양특례시와 GS25의 컬래버레이션으로 탄생한 고양고양이 관련 상품들이 즐비하다. 스티커와 캐릭터 양말부터, 티셔츠, 수첩, 보조 배터리, 메모지, 그림, 마스크 테이프, 노트, 수첩, 머그컵 등 형태도 다채롭다. 물론, 편의점 고유의 역할 수행은 기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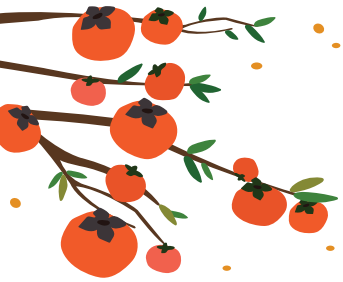
도시 매력을 전파하는 작은 홍보관

지역 특화 편의점의 인테리어 콘셉트는 ‘고양고양이가 살고 있는 고양이집’이다. 고양특례시 대표 캐릭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개성을 확보했다. 그렇다고 고양고양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곳은 작은 관광정보센터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출입문 옆 벽면에는 고양이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터치형 디지털 사이니지(전자정보표시도구)가 설치되었다. 다른 한편에는 여행의 길잡이가 되어줄 관광 지도와 밤리단 보넛길, 고양관광특구 스티커 지도 등도 마련되어 있다. 영문판도 함께 비치해 외국인 방문객들도 배려했다. 이곳은 개장과 함께 고양특례시 시티투어 코스에도 포함되었다. 고양특례시는 앞으로 지역 특화 편의점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해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 꿀팁 하나 ★

가까운 GS25 편의점에서 시티투어 탑승권을 구매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 고양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면 기본 종게 고양 곳곳을 즐길 수 있다. 고양~
※ 홈페이지 : goyangcitytour.modoo.at





알뜰하게, 품성하게 추석을 부탁해!

고양특례시 전통시장 둘러보기

매년 명절 즈음이 되면 전통시장은 사람들로 붐빈다. 1년 내내 대형 상점과의 힘겨운 경쟁을 이어가지만, 적어도 명절만큼은 전통시장이 판정승을 거둘 때도 많았다. 그런 전통시장이 코로나19로 명절 특수를 누리지 못한 것도 어언 2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이 술술 피어오르고 있다.



매월 끝자리
3일과 8일 열리는 5일장



일산시장

경의중앙선 일산역에서 내려 5분 정도 걸으면 일산시장에 닿을 수 있다. 일산시장은 1번부터 6번까지 여러 갈래의 길로 얹혀 있는데, 각 출입구마다 서로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1번 출입구로 들어서면 전통시장 특유의 색색을 뽐내는 옷가지와 신발 등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즐비하다. ‘길거리 음식’으로 대변되는 다채로운 먹거리가 목적이라면 2번 출입구가 답이다. 이밖에도 과일과 야채, 농수축산물 등 갖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100여 개의 점포를 둘러보며 장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치형의 천장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어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도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고, 일산서문상점가와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12번길 9(일산동)
주차장 402대(일산서문상점가와 공동 사용)
문의 (사)일산전통시장 번영회
☎ 031-975-3903

매일매일 열리는 상설 시장

원당시장

원당시장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원당시장은 날짜와 요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열리는 상설 시장이다. 시장 주변으로 상가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356일 사람들로 북적인다. 1문과 2문으로 구분된 출입구 중 어디를 선택해도 원당시장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너른 길을 따라 양쪽으로 점포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고, 간판도 통일감 있게 조성되어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신선한 채소와 다양한 종류의 빵, 맛깔스러운 밑반찬은 구경만 하러 간 이들의 지갑을 쉽사리 열게 한다.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군만두와 파배기, 찐빵 등은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에 충분하다. 지붕이 설치되어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점, 인근에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등도 사람들의 발길을 원당시장으로 향하게 한다.



위치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54번길 59(성사동)
주차장 인근 롯데리아 건물 무료 주차 가능
문의 원당시장상인회
☎ 031-963-0013



고양 전통시장 안내

덕이동패션번지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11번길 13(덕이동)
덕이동메인타운상점가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111(덕이동)
능곡시장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35번길 61(토당동)
삼송상점가
고양시 덕양구 신도1길 6(삼송동)
일산서문상점가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17-8(일산동)

추석 명절, 똑똑한 장보기

일산시장에서 배달합니다



전통시장에서도 똑똑한 장보기가 가능해졌다. 일산시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더욱 편리한 장보기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 앱별 배송 시간과 혜택을 참고해 스마트하고 알뜰하게 전통시장과 만나자.
※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바오

전통시장 전용 앱으로, 위치 기반 인접 시장이 자동 검색된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며 배송 시간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 5시 세 차례다. 2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보고 배달특급

고양페이로 결제할 경우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송 시간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5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되며, 최소 금액은 1만 원, 배송비는 4천 원이다.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일산서구(탄현동, 일산동, 주엽동, 대화동 일부, 덕이동 일부), 일산동구(중산동, 정발산동)로 배달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이며 기본 배송비는 3천 원이다.




치매? 극복!

고양특례시가 함께합니다

고양특례시 치매극복 지원 프로그램

매년 9월 21일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치매 극복의 날이다. 고양시는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환경과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극복 하나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 발병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계별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별검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감별검사의 경우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시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용대상 만 60세 이상 고양시민
장 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진행절차

단계별	검사항목	검사내용	검진대상
1단계	선별검사	인지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고양시민
2단계	진단검사	신경심리검사, 치매임상평가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3단계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진단검사 결과 치매원인규명이 필요한 자



치매극복 둘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을 통한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동네의원과 협업을 통해 만 70세 이상 고양시민에게 무료로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를 지원한다. 연중상시 운영된다.

이용대상 만 70세 이상 고양시민
※ 단, 최근 1년 이내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동네의원
에서 검사한 사람은 지원 불가
검진비용 치매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1회 무료 지원
장 소 협약을 맺은 관내의원(고양특례시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치매극복 셋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고양시민, 기준중위소득 대비 120% 이하 가구
지원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
지원혜택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치매극복 넷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고양시민(주민등록기준)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지원내용 성인용 기저귀 등 위생소모품 지원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적용 기간 예외)



치매극복 다섯 치매공공후견 사업

중증도 치매로 인해 서류 업무 및 복지 서비스 등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치매환자 중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지원내용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덕양구 치매안심센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26(화정동)
☎ 031-8075-4800



일산동구 치매안심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마두동)
☎ 031-8075-4850



일산서구 치매안심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88(일산동)
☎ 031-8075-4871

치매

극복 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급속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치매 인구 또한 급증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진과 함께 의학칼럼 코너를 꾸미고 있는 <고양소식>은 이번호에서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치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9.74%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에 따르면 그 비율은 2040년에 11.21%, 그리고 2050년에 13.17%로 증가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인당 치매 진료비는 5대 만성 질환(뇌혈관, 심혈관, 당뇨, 고혈압, 관절염) 중 가장 높아 가정과 사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 치매이며 혈관성 치매 그리고 루이소체 치매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뇌에 침착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혈관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뇌로 공급되는 혈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치매다.

양성건망증과 구별 필요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대표 증상은 기억력 저하다. 기억력 저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최근 일을 기억 못하지만 힌트를 받거나 오래 생각하면 기억이 나는 경우를 1단계)**로 본다. 대부분 양성건망증인 경우가 많고 병적인 경우보다 우울,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나타난다. **(2단계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 하는 경우다)**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말이나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치매환자는 대부분 오래된 기억에는 문제가 없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지만 본인의 고향, 어린 시절 일들은 잘 기억해낸다. 때문에 옛날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역시 기억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말하기, 알아듣기 장애 등 언어장애,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는 등의 시공간 장애나 참을성이 감소하거나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성격에 변화가 있는 경우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

모든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 상태를 인지하고 가족들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관심 있게 환자를 살펴보아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 발생의 35%는 다음의 인자만 잘 교정한다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다. **(교정 가능한 인자로는 사회활동, 인지활동의 저하, 고혈압, 비만, 청력저하, 우울증, 당뇨, 신체활동의 저하, 흡연 및 음주다)**. 우리나라에는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많이 있다. 지역마다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고혈압 및 당뇨의 경우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며 비만 및 신체활동 저하에 대해서는 운동 및 식사조절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청력저하는 치매의 교정가능한 위험인자로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지름길이다. 금주와 금연은 치매뿐 아니라 모든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시작이다.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보는데 따라 환자의 증상은 개선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한다. 먼저 **(환자의 약은 보호자가 챙겨주는 것)**이 좋다. 치매 환자의 경우 약물 복용을 깜박하거나 중복해서 먹는 경우가 있다.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며 인지저하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족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말고 전문가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예방 및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치매도 예외는 아니다.



글. 김향래(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교수)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임상외과학과 석사
-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전공의
- KAIST 의과학과 박사
- KAIST 전문연구요원
-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치매 및 인지 신경학 임상강사

고양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지원 정책

주거·생활

청년동지론(청년 주거(전세)금융지원)

청년들이 고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이루어나가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청년동지론은 주거비 문제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전세금 대출추천 및 이자를 지원한다.

운영기간 연중

지원대상 무주택 청년가구(만 19세 ~ 39세 고양시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미혼),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기혼)

지원내용 대출추천(5천만 원 이내) 및 연 이자 2.0% 지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85㎡)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구당 연 100만 원 이내 최대 4년까지 지원

문의 청년담당관 ☎ 031-8075-2725

생활 지원과 교육 지원은 물론, 공간 대여와 취업·창업까지. 고양의 다양하고 세심한 지원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다. 힘들 때 늘 곁에 있는 든든한 친구처럼 청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고양특례시의 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일자리

28청춘창업소 및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2019년 11월 총 42개의 컨테이너로 조성된 28청춘창업소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위한 공간이다. 이 중 메이커스페이스는 리모델링된 5개의 공간에서 체험과 교육 등이 진행된다.

운영기간 연중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일 3년 이내 기업(만 18세 ~ 39세),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양시 사업자 등록 가능자

지원내용 - 입주운영 : 입주기업 모집·관리, 연장평가, 기업 간 네트워킹, 협업 연계
- 자금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 홍보물·시제품 제작, 컨설팅·마케팅 비용 지원
- 기업교육 : 멘토링, 창업활성화 프로그램, 데모 데이 등 교육 프로그램
- 판로지원 : 나눔장터 연계, 입주기업 홍보, 타 지원사업 연계
- 메이커스페이스 :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장비 제공

위치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33(화정동)

문의 기업지원과 ☎ 031-8075-3573

교육

청취다방 HUB 및 우리동네 청취다방

청취다방은 ‘청년들의 취업과 소통이 있는 수다방’의 줄임말로, 청년들의 취업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다방’ 콘셉트에 맞춘 6개의 공간에서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고 있다.

운영기간 연중

지원대상 만 18세 ~ 39세 고양시 청년

운영시간 평일 10시 ~ 21시, 토요일 10시 ~ 19시
(공간별 최소 2시간 ~ 최대 4시간 이용)

지원내용 - 아이스아메리카노룸 : 강연, 세미나, 워크숍이 가능한 오픈된 넓은 홀
- 아이스/바닐라/라떼룸 : 세미나, 스터디,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 뜨거운아메리카노룸 : 방송 댄스, 요가, 연극 등 신체활동 공간
- 활기차, 기동차룸 : 소규모 스터디, 취업 컨설팅, 회의 가능한 공간
※ 공유주방, 스크린, 빔프로젝트, 음향장비, 테이블, 의자, 도서 비치

예약 프로그램 및 공간 예약 청취다방 홈페이지(goyangjobcafe.kr)

※ 코로나19로 인원 제한으로 공간별 인원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위치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74 화정터미널 2층(화정동)

문의 청년담당관

☎ 031-8075-2869



교육 및 건강

고양 내일꿈제작소 건립(예정)

‘내일꿈제작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SOC복합시설로 현재 건립 중이다.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등 각 세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지원대상 청년, 노인세대, 아동

① 청년내일꿈

- 공유오피스 : 창조적협업, 아이디어도 공유하는 사무공간
- 메이커스페이스 : 원하는 사물이나 제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공간
- 코워킹스페이스 : 강연, 휴게실, 카페 등 개방공간
- 교육장 : 직업기술교육(PC활동-IT), 직업기술교육(조리)
- 창작공간 : 팟캐스트, 음향 스튜디오 등
- 운영사무실 : 직원근무공간, 회의실 등

② 건강생활지원센터

- 건강생활지원센터 : 건강상담, 재활치료, 신체활동실 등
- 치매안심센터 : 진료, 검사,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 프로그램 운영, 대강당, 소강당 등

③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 다함께돌봄센터, 상상놀이터

문의 청년담당관 ☎ 031-8075-2719



고양시통합
일자리센터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 - '더 JOB 고양 일자리발굴단'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갑니다!

좋은 일자리는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다.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는 구인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일자리 찾기 원스톱 채용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가는 '더 JOB 고양 일자리발굴단'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기업을 위한 새로운 구인 솔루션

직주근접(職住近接).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울수록 삶은 윤택해지고 도시는 성장한다. 직주근접의 실현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서 시작된다. 고양특례시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더 JOB 고양 일자리발굴단(이하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일자리발굴단의 핵심 키워드는 '원스톱 채용대행 서비스'다.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수동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관내·외 다양한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좋은 일자리를 집중 발굴하는 사업이다.

창단 후 매년 70여 회 정도 기업 및 기관을 방문해 일자리 발굴을 위한 채용 솔루션을 진행했으며, 기업과 구직자가 새로운 기회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어려운 시기에도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진행하며 구인과 구직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50여 명의 구직자가 일자리발굴단의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으며, 하반기에도 여러 분야의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구직자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과 구직자를 잇는 발걸음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일자리발굴단은 ▲기업컨설팅day, ▲온라인채용설명회,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 등 기업별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기업컨설팅day' 운영이다. 총 4명으로 구성된 일자리발굴단 직업상담사가 4월 ~ 11월까지 매주 6개 지식산업센터를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입주 기업에 자금, 금융, 기술, 노무, 세무 등 기업 상담을 진행한다.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해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구인난을 해결하고, 4차 산업의 기반을 다져갈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 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쿠팡물류센터, 일산차병원 등 대량채용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용설명회와 채용행사 역시 계획 중이다. 앞으로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는 일자리발굴단 외에도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 발굴과 운영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폭넓게 지원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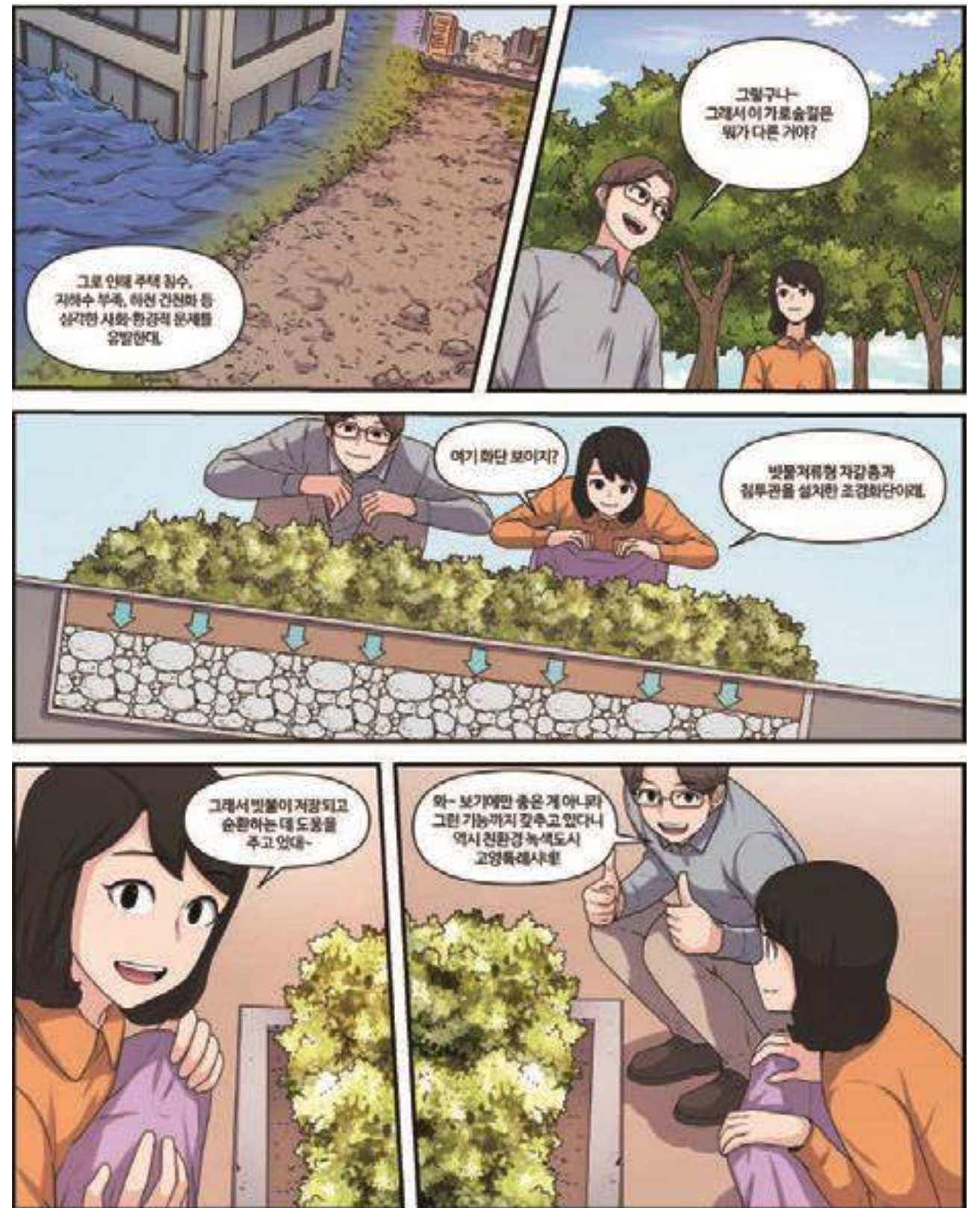
김주희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로 근무하며 고양시에 정말 좋은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에 딱 맞는 상담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박미숙 직업상담사

기업컨설팅day는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착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일자리 발굴로 더 많은 구직자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 꿈과 희망 문화공연 통해 전해요!

+ 고양실버인력뱅크 꿈전파문화공연단



꿈은 나이를 잊게 한다. 주름진 얼굴로 무대에 나서도 공연하는 순간만큼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 문화공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100세 시대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고양실버인력뱅크 꿈전파문화공연단(이하 공연단)의 활약이 궁금하다.



꿈을 널리 널리



나만의 실력 키워 일과 봉사를 병행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던가. 100세를 바라보는 어르신들도 이곳 공연단에서는 당당하고 멋진 단원이다. 꿈전파문화공연단은 고양특례시의 노인일 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고양실버인력뱅크의 공익형 활동 중 하나다. 2004년 어르신 자원봉사센터 역할로 시작한 고양실버인력뱅크는 시대 변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사업 전문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왔다. 일자리만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사업을 통해 참여 어르신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봉사활동을 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식적으로 한 달에 30시간 주 2~3회 활동하지만, 그 외 시간에도 요양 병원이나 어린이박물관 등지로 봉사 차원의 공연을 나설 때가 많다. 꿈전파문화공연단의 무대를 기다리는 기관들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동안 공연을 멈춰야 했던 때도 있었지만, 9월부터는 한 달에 1~2회 이상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에게 꿈과 웃음 전하는 시니어들

꿈전파문화공연단에는 10년 이상 활동해온 시니어들이 많다. 공연 장소와 분위기에 맞는 공연 주제를 선택하는 등 더 나은 무대를 위해 연습하는 일도 잊지 않는다. 단원들은 핸드벨과 마술, 손인형극, 인형극, 동극 등 다양한 공연을 무대로 옮기며, 시민들에게 꿈과 웃음을 전하고 있다.

공연단원으로 2010년부터 활동해온 한은순 어르신(77, 원흥동)은 “취미 삼아 핸드벨 교육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다가 일자리사업과 연계됐다”고 말한다. 곡을 익히고 연습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공연을 마치고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을 때면 벅찬 보람과 감동을 느낀다고.

장병탁(87, 원흥동)·이금복(95, 화정동)·조용서(95, 주업동) 어르신들은 100세 시대의 희망을 증명하는 시니어 마술사들이다. 어르신들은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가슴에 와닿아 기쁨이 된다”며, “이것이 곧 장수의 비결”이라고 환한 미소로 전한다.



66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연으로 나누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꿈전파문화공연단으로 활동하면서 일도 하고 봉사하는 일이 곧 장수의 비결입니다.

99



행복을 두루두루

시니어들의 멋진 무대 한 판

지난 8월 11일에도 일산역 전시관에서 공연이 펼쳐졌다. 인근 어린이집에서 단체관람을 하러 온 아이들은 이곳에서 일산의 변화와 일산오일장, 일산역의 역사를 살펴보고 각종 문화 활동까지 경험했다. 전시장에 도착한 아이들은 광복절이 있는 8월을 기념해 태극기 문양이 들어간 바람개비를 만들며 현장을 함께했다. 곧이어 꿈전파문화공연단의 무대가 본격적으로 올라갔다. 첫 순서는 시니어 마술사들의 마술 공연이다. 신기한 마술공연에 곳곳에서 아이들의 탄성이 터진다. 이어 공연복을 곱게 차려 입은 시니어들이 무대에 올라 ‘작은 별’, ‘텔레비전’, ‘젓가락 행진곡’ 등의 음악을 청량한 핸드벨 연주로 선보였다.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손인형극도 펼쳐졌다. 아이들은 신기한 마술에 환호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감상하고, 교육적인 질문에도 우렁차게 답하며 공연에 빠져들었다. 세대를 넘어 교감하며 꿈을 전파하는 어르신들의 활동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



고양실버인력뱅크

정발산센터 ☎ 031-932-7713~4
원당센터 ☎ 031-967-8169

꿈전파문화공연단

사업내용 인형극, 동극, 핸드벨, 마술, 손인형극 공연 제공
활동시간 월 30시간
참여방법 ① 내방상담
② 자원봉사신청서 작성
③ 참여희망 봉사분야 선택
④ 활동 시작



청년들이 전하는 햇살 같은 미술 속으로



주소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27,
405호 아트월갤러리(화정동)

고양특례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 청년작가와 발달장애인 청년작가들이 모인 창작그룹 ‘봄햇살스튜디오’. 미술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20여 명의 청년작가들은 마음껏 개성을 펼쳐 보인다. 젊음을 담은 그들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봄 햇살처럼 따스한 기운이 마음 가득 번진다.



예술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희망

그들의 시작은 웹툰 청년작가로 이뤄진 소수정원 그룹이었다. 그러다 아트월갤러리 멘토 작가와 인연이 닿으면서 작품 활동의 영역이 넓어졌고 인원도 늘었다. 청년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소속감도 커졌다.

66

작품 기획부터 제작, 판매까지 작가가 홀로 감당하다 보면 고독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저도 작품활동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한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접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던 분들과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 봄햇살스튜디오에서 활동하는 오후 작가 -

99

이들이 발달장애인 청년작가의 공동체인 ‘봄햇살’과 연합한 배경은 ‘상생’이었다. 멘토작가와 작업하면서 발달장애인 청년작가들과 인연이 닿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작가의 경우 국가지원이 절실한데도, 막상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이 되면 지원받기 쉽지 않다는 사정도 알게 되었다. 결국, 스튜디오가 있는 웹툰 청년작가 그룹은 발달장애인 작가그룹 ‘봄햇살’과 의기투합하기에 이른다. 지금의 ‘봄햇살스튜디오’는 이렇게 탄생했다.

모두가 그릴 수 있는 평등한 세계

봄햇살스튜디오에서 만난 청년작가들은 ‘미술’로 소통한다. 기성 청년작가들이 봄햇살스튜디오에 합류하면서 인원도 늘었다. 10여 차례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작품을 인정해주는 이들도 생겨났다. 최근에는 전시를 보러 온 시민이 구매 문의를 하기도, 다음 아트페어 작품까지 예약하는 경우도 있었다. 발달장애 청년작가 그룹 역시 다른 갤러리의 초대를 받아 하반기 전시를 확정했다. 뜨거운 반응에 봄햇살스튜디오 청년작가들도 자신감을 얻고 있다.

봄햇살스튜디오가 생각하는 미술은 ‘모두가 그릴 수 있는 평등한 세계’다. 다양한 성향의 청년작가들이 모인 봄햇살스튜디오는 그 자체로 남다른 정체성을 드러낸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종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발달장애 청년작가들의 작품이냐”고 묻기도 한다. 안목 높은 요즘 관람객들이 보기에다 발달장애 작가들의 작품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가 등장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를 끌면서, 봄햇살스튜디오의 활동에 관심을 주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한다.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원동력은 ‘미술’이라는 공동 목표다. 더불어 ‘상생’이라는 처음의 마음가짐을 계속 이어가려 한다. 봄 햇살 같은 작품들이 세상을 더 따스하게 만들기를 기대하면서.





깨끗한 재활용품 고양페이로 바꿔 드립니다

+ 고양 자원순환가게

재활용품이 머니(money)?

고양특례시에는 재활용품을 고양페이로 보상해주는 특별한 가게가 있다. 여기, 재활용품 유통체계를 변화시켜 자원순환의 착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자원순환가게를 소개한다.

에코도시를 향한 소중한 실천

지난해 대화동 단독주택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자원순환가게가 ‘달리는 재활용가게’로 업그레이드됐다. 기존 매장 형태에서 벗어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이동식 운영으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자원순환 장비를 갖춘 소형트럭이 해당 지역을 방문해 더 많은 주민들의 재활용품 배출 인센티브 적립을 돕는다. 올해 7월부터는 동 주민자치회의 참여와 더불어 고양시 청 일자리정책과 고양희망인턴과 자원순환활동가의 손길이 더해졌다.

매주 자원순환가게가 열리는 날이면 한 손 가득 페트병이 든 봉투를 든 주민이 줄을 길게 늘어선다. 부모님과 선생님을 따라온 아이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묻어난다. 이곳은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순환 교육의 현장이기도 하다.

쓰레기도 돈이 된다

자원순환가게는 크기와 색상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타입의 플라스틱을 수거한다. 다만, 원활한 수거를 위해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한 후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무게를 환산해 고양페이 쿠폰으로 전환해 주는 시스템인데,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다. 적립금이 5,000포인트 이상 쌓이면 현금 또는 고양페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페트병이나 플라스틱류를 들고 오면 무게를 달거나 개수를 세어 개인별로 수량을 적는다. 페트병 하나도 선불리 분리하지 않는다. 유색PET, 무색PET, 판PET, 플라스틱(PE, PP, PS) 등으로 나눠 당장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분리수거 작업을 거친다. 무색PET는 개당 10포인트, 유색PET·판PET는 1kg당 150포인트, 플라스틱류는 1kg당 200포인트씩 적립할 수 있다.

Mini Interview



이혜경 흥도동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순환가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지만 자원순환가게를 몰라서 참여 못 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고양소식>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졌으면 합니다.



김희정 대화동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순환가게 덕분에 주민들끼리 만나는 시간이 생겼고 동네 전체가 활기차졌어요. 포인트를 모으는 재미와 함께 돌려받은 고양페이를 사용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를 넘어 대한민국 전 지역에 자원순환가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co
2gather



- 사용방법**
- ① 앱 다운로드(구글 플레이/앱스토어)
 - ② 가입
 - ③ 포인트 적립 및 품목당 단가 확인 가능
(재활용 시세에 따라 변동 가능)
- 운영기간** 2022. 4. ~ 12. (주 1회 운영)
※ [이동식] 시범운영 기간 2022. 4. ~ 9.
- 운영시간** 매주 14:00~17:00(주 1회)
- 운영장소**
- 월 (고정식) 흥도동 행정복지센터
 - 화 (이동식) 대화동 장촌초등학교 후문 부근 / 단독주택 지역(대화동 2273-5)
 - 수 (이동식) 고양시 여성회관
 - 목 (이동식) 로담문화플랫폼(구 능곡역)
 - 금 (고정식)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가을을 물들이는 창릉천 코스모스 이야기

창릉천 코스모스길

되약별이 물러난 자리에 가을이 곱게 물든다.
가을이 내려앉은 풍경은 우리에게 어디로든 떠나라며 부추긴다.
올 가을, 누구와 언제고 걸어도 좋은 창릉천 코스모스길을 만나본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317번지 일원

강매석교
다목적 광장
운동시설, 쉼터
포토존

온전히 고양땅을 딛고 흐르는 물길

북한산에서 발원한 창릉천(昌陵川)은 덕양구를 지나 행주동에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물길이다. 창릉천의 이름은 서오릉 중 하나인 창릉(昌陵, 조선 8대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의 능)에서 비롯됐다. 과거에는 덕수천(德壽川)으로 불렸는데 천변에 있는 덕수공원에 본래 이름이 남아있다. 상류 일부 지역은 청담천(淸潭川)이라 부르기도 했다.

가을과 함께 걷는 길

창릉천의 코스모스길은 덕양구 강매동, 일명 강고산 마을에서 행주산성을 바라보며 이어진다. 길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군락으로 뿔은 코스모스 꽃무리의 행렬은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33호인 강매석교(돌다리)에까지 닿아서야 빛을 감춘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지만 과거에 이곳은 황무지에 가까웠다. 방치된 수변 공간을 가꾸기 위해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함께했다. 해마다 유해식물과 잡초를 뽑았고, 길가에 코스모스 꽃씨를 뿌려 하천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몇 해가 지나자 창릉천의 생태계는 점차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코스모스가 군락을 이루며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덕수교를 지나면 자전거길과 산책로, 수풀이 조화롭게 배치된 공간이 펼쳐진다. 시골마을에 온 듯 정겨운 징검다리 사이로 물고기가 헤엄치고, 맑은 물소리가 어우러진다. 특히 백로, 청둥오리 등의 서식처가 있어 동식물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산교육 장소로도 그 가치가 크다.



INFO BOX



**고양시 향토문화재 33호
강매석교(江梅石橋)**

고양특례시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시대 돌다리다. 과거에는 서울과 고양을 지나 경기 북부로 오가는 중요한 길목 역할을 했다. 석교의 구조는 네모진 돌기둥 24개의 교각을 만들고 그 위에 교판석을 깔 모양을 닮았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9월과 10월은 창릉천 코스모스길의 아름다움을 마주하는 시기다. 길가에 피어 오른 하양, 분홍, 주황 코스모스 꽃무리는 지나는 이들의 마음을 꽃잎처럼 감싼다. 드문드문 이어진 갈대와 억새는 바람에 맞춰 몸을 흔들고, 들꽃의 향기가 콧잔등을 스치며 가을이 완연했음을 알린다. 파란 하늘 아래 버드나무와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이곳은 한 폭의 그림처럼 수수하고 정겹다. 모두 창릉천 코스모스에서 누릴 수 있는 감미로운 선물이다.

산책은 강매석교*까지 왕복 코스로 돌아보거나 중간 쉼터까지만 돌아보아도 좋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과 나무 사이사이로 쏟아지는 빛을 좇으며 걷다 보면 오롯이 가을에 집중하게 된다. 곳곳에 설치된 하트 포토존과 바람개비 등 장식물에서 인생샷을 남기는 재미도 쏠쏠하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연인들이 여유롭게 걸으며 연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잔잔하게 흐르는 창릉천과 어우러진다. 이곳의 또 하나의 볼거리는 노을이다. 한가득 쏟아지는 붉은 빛이 꽃길을 품에 안는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풍경에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렇게 고양의 가을은 깊어간다.



고양낙농치즈
체험장

피자를 한 입 베어 물면 길게 늘어지는 치즈, 아이들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 고사리 손으로 치즈를 조물락거리 보다가 피자 도우에 토핑으로도 올려본다. 고양낙농치즈체험장에서 치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경험하며 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노래하며 내 손으로 조물조물 자연치즈 만들어봐요!

+ 고양낙농치즈체험장



도심 속 낙농치즈 교육농장

고양낙농치즈체험장 소재옥 대표는 “제가 오래 살아온 고양시에서 치즈체험장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전북 임실에서 치즈체험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약 15년 전에 직접 임실로 내려가 콘텐츠를 프랜차이즈하고 고양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개인 체험도 가능하지만 평일에는 현장학습을 통해 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단체로 방문한다. 현장에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5개 있다. 오븐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방문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고양낙농피자스쿨’도 운영 중이다.



Mini Interview

서대용·고정빈 가족 (덕양구 관산동)

이전에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온가족이 함께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네요. 치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피자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아이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만들면서 재미와 성취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좋았습니다.

보고 만지고 먹고 뛰고...오감이 즐거운 놀이

고양낙농치즈체험장은 농촌진흥청의 농촌체험학습 운영 교육장, 교육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도 받았다. 치즈와 피자를 만드는 체험 외에도 다양한 요리 및 공예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덕분에 재방문율도 높은 편이다.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오기도 한다.

이날 오전에는 치즈와 피자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신나는 노래로 시작한 프로그램은 치즈에 관한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고르곤줄라, 에멘탈, 모차렐라 등 여러 치즈 종류를 배우고, 치즈를 만드는 과정을 눈으로 먼저 익혀본다. 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은 우유를 응고해 형성된 단백질 젤린 커드(Curd)를 반죽하고 늘리는 치즈 제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따뜻한 물을 넣어 부드러워진 커드를 조물조물 만지고, 갓 만든 치즈와 함께 색색의 재료를 올려 피자를 만들며 오감놀이도 즐겨본다. 체험권뿐 아니라 아이들과 동행하는 부모를 위한 입장권도(5000원, 현장결제) 판매하고 있으니, 예약 시 참고해보자.



운영시간 매일 10:00 ~ 17:30(11, 12, 14, 15시 예약)
체험비용 A패키지(치즈+피자 만들기) 30,000원
 B패키지(피자 만들기) 20,000원
주소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893번길 74(관산동)
문의 ☎ 031-964-3057

떠 가 나 요 을 산 책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 바로 가기

덕양구도서관과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77번길 8(화정동)

☎ 031-8075-9215

일산동구도서관과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마두동)

☎ 031-8075-9038

일산서구도서관과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9(대화동)

☎ 031-8075-9130

책으로 가을을 맞이하는 방법, 고양특례시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온 가족과 함께하는 고양의 가을은 넉넉하고 풍성하다.

자료. 고양시 도서관센터

책과 가까워지는 시간

고양 지역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한다. 독서의 달 행사는 직접 참
여하며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풍성하
게 채워졌다.

도서 겔면에 주제를 추측할 수 있는 키워드만 노출하
여 포장한 ‘블라인드 북’, 독서와 미션을 결합한 ‘어린
이 책 빙고’, 주제별로 짧은 글을 써보는 참여형 전시
‘우리의 이야기, 하나의 책’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마련
되어 독서로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나의 독서스팟, 나의 책장’을 SNS로 공유하
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간의 소통하는 기회
도 마련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고양시 도서관센
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9월 독서의 달 행사

블라인드 북

대상 성인 및 청소년

장소 13개 시립도서관(어린이도서관 3곳, 식사, 덕이, 일산
도서관 제외)

내용 포장 겔면 도서 분야 및 키워드를 보고 책을 대출

*블라인드 북(Blind Book) : 도서를 포장한 후, 겔면에 주제를
추측할 수 있는 키워드만 노출하여 어떤 책인지 알 수 없는 상
태에서 도서를 빌려가도록 유도

어린이 책 빙고

대상 유아 ~ 어린이

장소 16개 시립도서관(식사, 덕이, 일산도서관 제외)

내용 어린이 대상 다양한 책 빙고 미션지 배부, 빙고 미션을
완료한 어린이에게 작은 기념품 증정

우리의 이야기, 하나의 책

대상 고양시민 누구나

장소 16개 시립도서관(식사, 덕이, 일산도서관 제외)

내용 시민이 직접 주제별로 짧은 글을 써보는 참여형 전시

#나의 독서스팟, #나의 책장

대상 고양시민 누구나

장소 인스타그램

내용 사진으로 독서공간을 공유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고양특례시 도서발굴단의 추천 도서가 도착했습니다



읽는 슬픔, 말하는 사람

저자 황인찬 | 출판 안온박스

#야무진_세미집순이가_추천합니다

시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웬지 모를 멋짐에 시집을
가까이하고 싶어도, 해석하고 정답을 찾기 바빴던 독
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책이다. 시 한 편에 황인찬 작
가의 산문 한편이 짝을 이뤄 시 그 자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시라는 것은 결국 어떤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물과 이미지를 경유하여 나타내는 일
입니다.”



최소한의 선의

저자 문유석 | 출판 문학동네

#천사소녀_답정너가_추천합니다

공존, 공정, 평등, 정의 등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단어들에 대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
한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는
지, 공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아가면
서 생각해야 할 여러 질문들이 책 속에 담겨있다.

낭만의 계절 가을에 즐기는 문화 콘서트

낭만이 가득한 가을이 찾아왔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무대부터
가을밤을 수놓을 전통 가락이 숨쉬는 무대까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 고양특례시의 문화 세상 속으로 나들이를 떠나보자.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 www.artgy.or.kr
문의 ☎ 1577-7766



1
박경소 가야금 SCAPE
<박경소 가야금 SCAPE>는 차세대
명인 가야금 연주가 박경소가 이틀간의
프로그램을 다르게 구성한 공연으로 첫째
날은 전통 가야금 연주자의 진수를 보여줄
'짐죽파流 가야금 산조'(장단 김웅식)를,
둘째 날은 동료 가야금 연주자 임지혜,
이지영, 김민지, 그리고 안상욱의 타악으로
컨템퍼러리 국악의 현재를 여실히 보여줄
'박경소 창작 가야금 WORKS'를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9. 17.(토) ~ 18.(일) 토/일 16: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마두동)
티켓 전석 30,000원

2
뮤지컬 <앤 ANNE>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소설 <빨강
머리 앤>을 극단 결판만의 독창적이고
신선함을 바탕으로 만들어 낸
뮤지컬<앤ANNE>은 4번의 대학로
공연을 거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학로 스테디셀러로 2019년
고양아람누리에서의 공연에 이어
2022년 고양어울림누리 앵골 공연
확정으로 100년이 넘어도 변하지 않는
공감과 꿈의 가치를 선물하고자 한다.

일시 9. 23.(금) ~ 25.(일) 금 15:30, 19:30 /
토 14:00, 18:00 / 일 15:00
장소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성사동)
티켓 전석 35,000원

3
홍진호 콘서트 <진호의 책방>
첼리스트 홍진호가 선정한 책들을
소개하며 그와 관련된 음악들을 직접
연주하는 <진호의 책방>은 독서와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
선정된 책은 김초엽 작가의 장편소설
<지구 끝의 온실>로 피아니스트
김준서와 바리톤 박현수가 게스트로
참여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9. 24.(토) 16: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마두동)
티켓 1층석 40,000원, 2층석 30,000원



4
2022 아침음악나들이 3 <김정민>
2022년 아침음악나들이 3번째 무대는
90년대 오빠부대를 이끌며 록발라드의
열풍을 불러온 김정민의 무대로
꾸며진다. 김정민은 최근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프로젝트 그룹
MSG워너비 멤버로 활동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변함없는 노래
실력과 강렬한 허스키 보이스로 돌아온
원조 아이돌 가수 김정민의 무대를
아침음악나들이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일시 9. 29.(목) 11:00
장소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성사동)
티켓 전석 25,000원



5
천하제일탈공작소 <추는사람, 고양>
2006년 설립된 천하제일탈공작소는
전통 탈춤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여러 지역의 탈, 움직임,
음악, 언어를 확장 시키며 현시대의
이야기와 함께 지속적인 창작 활동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공연은 전통탈춤꾼들의 강령탈춤,
통영오광대와 시민 워크숍을 통한 시민
합동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10. 06.(목)~ 09.(일)
목/금 20:00, 토/일 15: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마두동)
티켓 전석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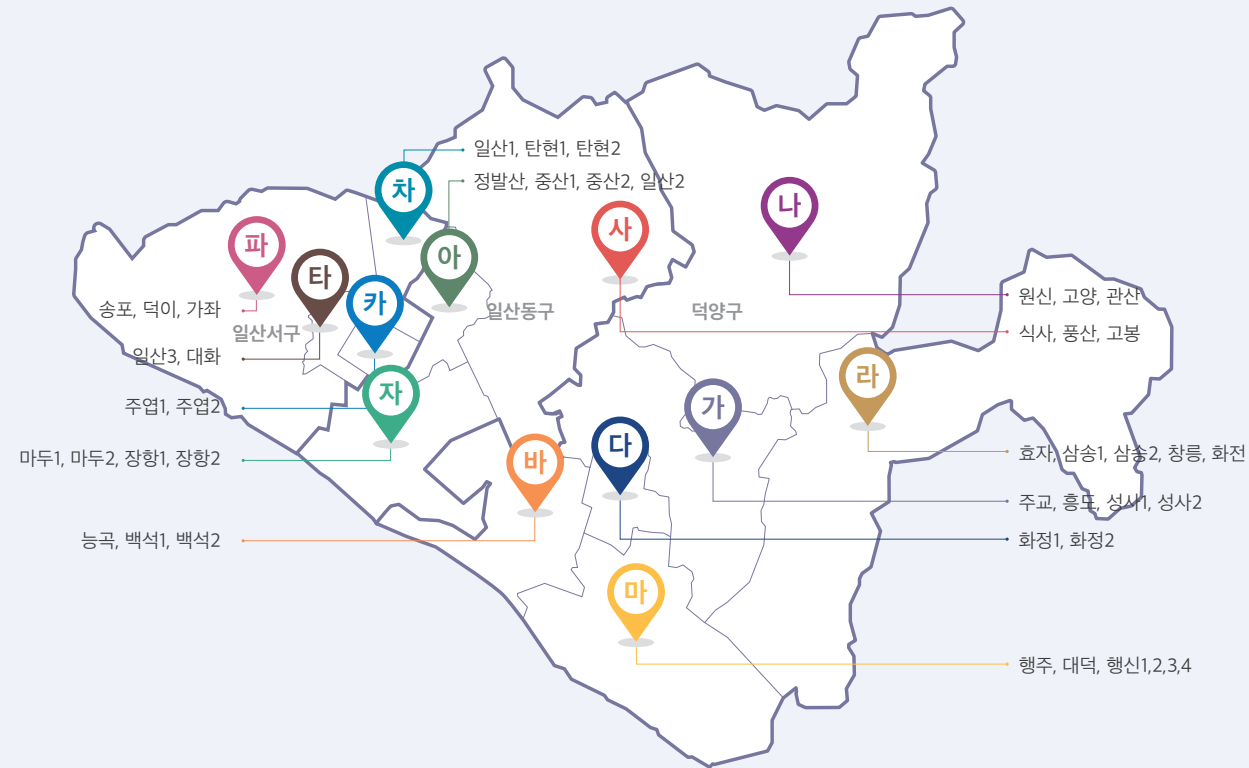


시민탈춤 워크숍
<모두와 탈춤, 고양>
참여하기

공연, 전시부터 작지만
문화예술교육까지
시민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고양특례시 지역일꾼을 소개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과 제11대 경기도의회 고양시 지역구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늘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의원, 시민의 의회가 되어 더 나은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해본다.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다 선거구



라 선거구



마 선거구



바 선거구



바 선거구



사 선거구



아 선거구



자 선거구



자 선거구



차 선거구



카 선거구



타 선거구



파 선거구



비례대표



제9대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원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부응에 힘입어 고양 시의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위원장** 박현우
위원 공소자, 권선영, 김수진, 김학영, 엄성은, 장예선

시민의 편익증진과 정책수립 및 결정, 재정운영 등 시정의 중추적인 분야를 담당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부위원장** 신현철
위원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설행정 및 교통 분야를 담당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부위원장** 고덕희
위원 공소자, 박현우, 신현철, 원종범, 임홍열, 최규진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에 관한 소관업무를 다루며,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부위원장** 문재호
위원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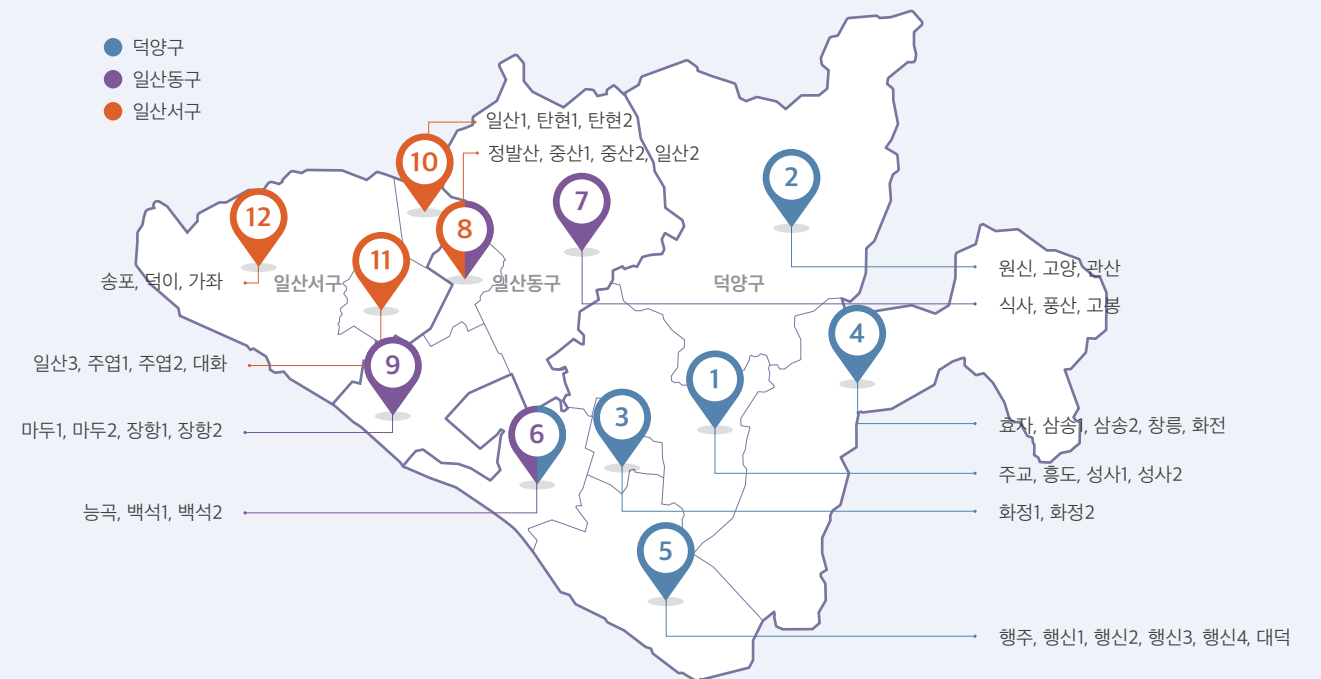
환경관리 분야와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분야를 담당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 최규진
위원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회복지, 보건위생 등 가족정책과 관련 분야를 담당합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고양시지역구 의원



시정 게시판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부과대상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산정기간 2022. 1. 1.(토) ~ 2022. 6. 30.(목)
납부기간 2022. 9. 16.(금) ~ 9. 30.(금)
유의사항 납기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
기한이 지난 후 강제 징수(압류)됨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CD/ATM, 고
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
좌 입금, 자동이체, ARS(1644-4600) 이용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 031-8075-2648, 2649, 2650, 2667)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캐릭터 공모전
‘상상+더하기 콘테스트’



공모주제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상징하는
독특하고 참신한 캐릭터
공모대상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심있는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일정 2022. 8. 22.(월) ~ 9.23.(금)
공모방법 구글신청서 (http://asq.kr/zUrtV33G) 접수
출품규정 - 캐릭터 기본형(정면/후면) + 응용형 2컷이상
(표정/동작 다양화)
- JPG, PNG 등 이미지 파일 제출
- 컴퓨터 그래픽 or 손그림 가능
(추후 당선 시, 원본파일 제출 요청)
심사기준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상징성
수상작 5작품
시상내역 최우수상(1명)-50만 원 상당의 상품
우수상(1명)-20만 원 상당의 상품
장려상(3명)-10만 원 상당의 상품
*제세공과금 별도
문의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975-3314 내선1)

고양시아이러브맘카페와 함께하는
‘부모실기교육 - 나무 할아버지의 목공소리’

교육주제 나무 할아버지의 목공소리(나무모빌 만들기)
신청기간 2022. 9. 5.(월) ~ 9. 19.(월)
신청대상 고양시 관내 영유아 부모 20명
신청방법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로그인 →
가정양육지원 → 교육행사 → 부모교육 신청
교육일시 2022. 9. 23(금) 10:00 ~ 12:00
교육장소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교육장
문의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975-3314(내선1))

헌혈의집 대화역센터 개소 안내

개소일 2022. 7. 20.(수)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73 킨텍스프라자 4층
※ 3호선 대화역 3번 출구방면 1층 신한은행 365
운영시간 평일(월~금) 10:00 ~ 19:00
주말·공휴일 10:00 ~ 18:00
문의 헌혈의집 대화역센터(☎ 031-919-4930)

국가유공자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 안내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내용 보훈섬김이가 주 1~2회 가정으로 방문하여
가사·편의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로 거동이
어려워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
신청방법 주소지 보훈관서에 신청서를 제출
※ 생계수준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 중 생활이 어려운
재가 또는 시설급여 이용자
신청방법 주소지 보훈관서에 신청서를 제출
※ 생계수준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문의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89,
☎ 031-820-0455)



모바일 고양소식지의 새 이름 ‘고.양.원.픽’ 4행시 챌린지에 참여해주신 고양원픽 독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독자 여러분의 4행시를 지금 공개합니다.



임화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고 양시민들의 새로운 소식을 기다렸다!
양 털처럼 풍부한 고양시 관련 뉴스있다!
원 하는 시정소식들이 모두 모여 다 있다!
픽 하면 정보들이 모두모인 고양원픽!

서준수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고 양특례시 여러분
양 심을 걸고 여러분들께 약속합니다
원 하시는 고양시의 모든 소식을
픽 업해서 유용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홍미은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고 민하지 말고
양 질의 정보를
원 픽에서 쓱쓱
픽 업해보아요!



문은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고 온 다습한 무더운 날씨에
양 동이 샤워도 덥고
원 거리 피서도 지치고 힘들때
픽 미업 고양원픽으로 힐링타임~

김미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고 (go!) 떠나자! 북한산 계곡으로~
양 팔 벌려 푸르른 싱그러움을 만끽하며~
원 없이 이 여름을 즐기자~
픽 (pick) 성공! 더위와 스트레스는 저 멀리~

박가람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고 양시로 와보세요
양 처럼 귀엽고
원 송이처럼 재미있는 고양시로
픽 쓰러질것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요!

이동열 (하남시 신장동)

고 양시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양 눈으로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원 래부터 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
픽 업은 당연히 이뤄지지 않겠어요?

이민석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고 양원픽을 클릭하면
양 갈래 길에서 헤매지 않고
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픽 선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홍지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 추가 익어가는 가을이 오래해요
양 꺾 선선한 공기를 가슴에 채우고 고양원픽을 펼쳐요.
원 기를 팍팍 충전할 고양 맛집을
픽 하기만 하면 올 가을 맛이 준비 완료!^^

독자 소리함

독자의 소리

8월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김수연
(일산서구 일산동)

‘3S 여름철 지구를 지켜요’가 유익했습니다. 소식지에 나와 있는 에너지 절약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녹색 지구를 만드는 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고양소식> 항상 응원합니다.

홍지현
(일산서구 대화동)

편집이 깔끔하고 독자 중심 콘텐츠가 많아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별 도서관 행사, 숨은 핫플레이스 소개 등을 통해 가족과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표지모델 응모안내

<고양소식>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입니다.

고양특례에서 가족, 친구, 이웃 등과 함께한 시민 여러분의 사연을 제보해주세요. 당첨된 분은 사연과 함께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공간에서 표지 사진을 담아 드립니다. 당첨자에 한하여 고양페이 5만 원을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사연, 원하는 촬영 장소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이메일 gysosik@naver.com

고양 사랑방

시, 산문, 수필 등 시민의 실력을 맘껏 펼쳐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고양페이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에세이, 기행문, 독후감, 사진, 만화 등 제한 없음
원고 분량 A4 용지 이내(시, 만화 등은 적정 분량)
보내실 곳 이메일 : gysosik@naver.com
우편 :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 보내주신 작품의 오타, 비문 등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양소식>은 어떠셨나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더 알찬 <고양소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온라인 애독자 참여 바로가기

고양시와 소통해요!

오늘 고양시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양한 소통 채널로 생생한 고양시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고양원픽



시 홈페이지



고양TV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2022년 2학기

고양 30년을 담다 특례시로 날다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사전신청 필수!!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고양시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 ▶ 복지대상(초생할수금,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1~8구간 장애·다자녀 가구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1~3구간 일반가구 대학생



지원 기준

①~④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주소기준 : ㉠또는㉡
- ㉠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 학생 본인이 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양시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신청일 현재 학생 부모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29세 이하 대학생(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에 재학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70점(C학점) 이상 (단,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 대학생 미적용)



지원 금액

-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간 150만원 한도)
- ▶ 복지대상 대학생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 ▶ 그 외 지원대상 대학생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 ※ 본인부담 등록금은 국가장학금, 학교 부모직장 등으로부터 차입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신청 접수

- ▶ 접수기간 : 2022. 9. 13.(화)~11. 30.(수)
- ▶ 접수방법 : 온라인(고양시청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방문·우편(고양시청 평생교육과)
- ▶ 문 의 : 고양시청 평생교육과 ☎ 031-8075-2272, 2275
- ※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참고



고양특례시

폴질하는 곳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고양in 행복인

2022 SEPTEMBER Vol.355

받는 사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앞



GOYANG CITY MAGAZINE

2022 SEPTEMBER



